

전간기 카를로스파의 노동조합, '왕과 반자본주의를 위한 노동 조합'

심장중의강철



Sindicatos Libres(스페인 자유노조)의 상징. 정의와 자유라고 적혀있다. 저기 있는 낫과망치는 그 낫과 망치가 맞으며 이를 의도한 것도 맞다.

<https://youtu.be/Wpq74iU6Bkg>

전간기 스페인 노동조합은 다양한 성격을 아우르고 있었다. 혁명적 조합주의,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성향의 CNT-FAI는 물론이거니와 불세비즘,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좌파등의 세력을 아우르는 UGT등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노조는 그 중에서도 특이한 성격을 가진 노조 Sindicatos Libres(자유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까 한다.



Ramón Sales Amenós

자유노동조합은 CNT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했던 Ramón Sales Amenós, 급진파 카를로스주의자였던 Juan Laguía Lliteras 등의 인물들이 바르셀로나 Ateneo Obrero Legitimista에서 1919년 탄생을 선언한 카를로스주의적 '전통' 노동조합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만의 노동조합에 있어야 한다.'를 거부한 이들로 노동조합의 자유화를 말하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ана키즘적 노동조합이 원하던 '국제 노동자 단결을 통한 연합'을 거부했고 '노동자를 직종으로 묶어 연대시키는 산별노조 단결' 또한 거부했다.

이들의 세력은 꽤나 강대했으며 카탈루냐, 바스크등의 전통적으로 지역주의가 강대하던 지역 외에도 나바라, 마드리드, 그라나다 등에도 걸치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였다.

2공화국 선포(Proclamación de la Segunda República española) 당시 조직은 강제 해산되었으나 남은 잔존 세력들이 스페인 내전 당시 카를로스파와 협업하여 내전을 이끌었으나 토사구팽당한 바가 있다.

자유노조는 철저히 전통주의에 입각하였으면서도 혁명적 '노동자주의'에 입각하였는데 이들의 이상을 천천히 살펴보자면

1.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반자본주의적 노동자 단결

2. 노동자의 완전한 자율주의

3. 노동조합외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

4. 반자유주의적 '전통적 기독교 민주주의'

5.CNT에 반대

6.'과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할 것

가 된다. 앞서 1,2은 CNT에 있었던 노동자주의의 영향이며 3의 경우는 그들이 그토록 말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되는게 아니라 노동조합 없이도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를 내건 것을 볼 수 있으며 4,6은 전통적인 카를로스적 지역민주주의임을 볼 수 있고 5은 그런 이들이 내걸었던 당연한 이치였다.

이들은 때로는 기업가와 협상을 맺으며 CNT의 총파업적 투쟁을 '테러리즘'으로서 묘사하며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그토록 싫어하고 반대하던 CNT와 손을 잡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기업가에 반대한 총파업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일부 보수적인 이들은 기존 질서를 수호해야하기에 노동자의 투쟁을 반대하였지만 자유노조는 '우린 노동자의 직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으며 우린 절대 기업가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확고한 반자본주의적 성향은 다른 가톨릭 전통주의 세력과의 연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유노조는 이에 그치지기 않고 더욱 더 전투적 노조주의를 실행하였고 카를로스파와 연대하며 세력을 넓히게되었다.

이 조직직은 파시즘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누구는 파시즘 바로 근처에 있는 조직으로, 누구는 히스패닉 파시즘의 원시적 존재로 삼기도 하며 누구는 이미 30년대에 와서 전통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현 카를로스파(카를로스 좌파)는 자유노조를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허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스페인 전간기 노동운동을 살펴보는 데에서 매우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